

도서발굴단 추천도서

지난달, 사서는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?
#ହି귀친구마라탕 #천사소녀답정너 #아무진세미집순이 #무채색레드벨벳이 추천합니다.

글. 고양시도서관센터

#1

겨울이 지나간 세계



아사다 지로 | 부키

주인공은 정년퇴직 후 뇌출혈로 쓰러진다.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주인공은 마담 네즈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기묘한 상황에 처하는데, 그 과정에서 숨기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한다. 삶의 마지막 막을 맞이할 거라 생각하는 주인공에게 마담 네즈는 “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”라고 말해준다.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보다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을 후회 없이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해 본다. #ହି귀친구마라탕

책속한줄

“당신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”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.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말하기에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.

#2

여름의 빌라



백수린 | 문학동네

백수린 작가의 책은 스쳐 지나가는 줄 알았던 인연이 반복되어 깊은 관계가 되고,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다시 멀어지고,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. “주아 너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자유가 있다”라는 말처럼 이번 여름,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평범하지 않은 반짝이는 여름이 되기를 바란다. #천사소녀답정너

책속한줄

“예상치 못했던 일이 주는 즐거움. 계획이 어그러진 순간에만 찾아오는 특별한 기쁨. 다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새 한여름의 유성처럼 떨어져 내리던 행복의 찰나들.”

#3

프리워커스



모빌스 그룹 | 랜덤하우스코리아

이 책은 모든 과정을 일상적으로 써 내린 듯한데도 비범하고 파격적으로 다가온다. 그중 제일은 판매상품 기획보다 브랜드를 먼저 만들어냈다는 것. 내 일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일한다면 ‘프리워커’라니! 이러한 관점과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며, 이것을 공유하고 함께 추구하자고 외치기 때문에 열광하는구나 싶었다. 요즘 사람들의 ‘일’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이 책을 1순위로 두어도 좋다. #아무진세미집순이

책속한줄

“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,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. 우리는 주체적으로 일할 때 만족을 느꼈고, 성장했다.”

#4

어크로스 더 투니버스



임국영 | 자음과모음

그 옛날의 만화 ‘구러기수비대’ 노래로 시작되는 도입부, 귀여운 표지와 귀여운 소개에 그렇지 않은 내용이나 결말이 우리를 반기지만, 과거를 좇다 보면 누구나 모든 상황에 완벽한 결말을 떠올릴 수는 없다는 점이 또 공감이 간다.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이 책의 소설 3편을 외롭지만, 또 외롭지 않은 이 시절의 우리에게 추천하고 싶다. #무채색레드벨벳

책속한줄

“어릴 적 수진은 한 만화영화가 완결 날 때마다 말로 다 표현할 길 없이 서글펐다. 결말을 본 순간 수진은 주인공과 그의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홀로 퇴장하거나 추방당하는 기분이었다. 내가 사랑하던 그들은 이제 나랑은 무관한 세계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겠지. 그래서 수진은 울었다.”